자비 나눔의 손길 지구촌 곳곳으로…

수화복지회,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 경화상사, 3년째 아름다운 동행 후원 에스알에스코리아 난치병어린이 도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내외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조계종 선원수좌회지회가 지난 2일 종단이 추진 중인 아프리카 학교 건립사업에 5억원을 전달하는 모습.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내외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선원수좌회지회(대표이사 성법종)는 지난 2일 종단이 추진 중인 아프리카 학교 건립사업에 5억원을 전달하는 등 불교계 곳곳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무원장 자승스님은 "선원수좌회지회 스님들께서 큰마음을 내주어 고맙다"며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 동이 텄으니 앞개에 아름다운동행에서 잘 쓰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측정공구 전문 수입 유통업체 경화상사(대표이사 임병준)도 나눔 행렬에 동참했다. 지난 2010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아름다운동행을 후원하여 3년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경화상사는 지난 4월28일 아프리카 학교 건립사업에도 1000만원을 기부했다. 경화상사의 후원으로 지난 3년 동안 제소두가정 75곳이 생계비 지원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동행에 후원한 금액도 7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경화상사는 "주준한 기금후원으로 우리나라의 소외된 이웃들과 아프리카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적인 삶을 선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R도로 공원과의 외식업체 에스알에스코리아(대표이사 김영규)도 난치병 어린이 후원을 위해 조계종 시범복지재단에 오천을 다했다. 에스알에스코리아는 지난 7일 직원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지난 4월27일 난치병 어린이 지원을 위한 3000만 불이하장애 장기한 이들을 위한 간식으로 했며 기 1000개를 지원하기도 했다. 에스알에스코리아가 후원한 기금과 간식은 약 1000만원 상당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눔에 동참할 예정이다. 김영규 대표이사는 "앞에 되지 않는 급여이지만 병마로 인해 고통받는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태규 기자 ctrl1@buljgo.com

불교방송 이사장 선출 못해

종하스님 추천하고 선출방법 엇갈려

불교방송 신임 이사장에 조계종 원로의원 종하스님이 단독으로 추천됐으나 선출방식을 놓고 이사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 선출하지 못하고 폐회했다.

불교방송은 지난 6일 오후 4시를 마감 기한으로 백합실에서 이사 21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회의 초기부터 회의에 참석한 정 이사장 영담스님의 참석 여부를 놓고 조계종 스님 이사들과 신흥원 추천 일부 재가 이사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재가 이사는 몇 점으로 막대를 내려치며 종단 스님 이사들을 향해 '당신' 이라고 표현하고 스스님들 역시 "신도들 신도들에 떳동하라"고 응수하는 등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하기까지 하였다. 이날 개원한 불교방송사장이 폐회를 선언했다. 이로써 정 관 계정의 건 등 안면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안건은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하정철 기자 hjc@buljgo.com

광공산 국제선센터 개원

동화사, 672㎡ 규모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성문스님)는 지난 2일 한국 선불교의 위상을 제고하고 선(禪)문화를 국내외에 보급 하기위한 팔공산 국제선센터 개원식을 개최했다. 개원식에는 진제종헌 예하를 비롯해 주지 성문스님, 지성스님,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여의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원한 팔공산 국제선센터는 강당과 수련관, 관리사 등을 갖춘 연건평 672㎡의 규모로 완공되었다.

국제선센터 개원식에 참석한 진제 종헌예하는 "참선당" 현판식에 이어 "붉은 지혜는 생활 속에 있으니 오늘날받은 정진해란 마음의 화두가 될 것"이라며 "팔공산국제선센터 개원이 한국의 간화선을 세계화로 이끄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성명했다.

이에 앞서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은 "앞개 있고 격식 있는 팔공산국제선센터의 완공으로 명실상부 심전법이 세계인에게 마음의 평화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화사는 국제선센터 개원을 통해 지역 종심사찰로서의 동화사의 사격을 일신하고 지역불자들의 정신적 귀의처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박광호 대구·경북지사장

팔공총림 동화사는 지난 2일 팔공산 국제선센터 개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현판식 모습.

부처님오신날 절에 가는 신부님

라이문드 신부님, 송강스님과 '행복한 인연'

"우와! 상상도!" "선종(禪宗)상상!" 이곳은 어딘가 달라요-하하하 이종님 라이문드 신부가 5월 전 발심상담에 부임해서 계셔서 송강스님을 만나고선 '상상도' 라고 환호했다. 고전음악이 흐르는 스님방에 마주앉아 묽은 차와 향을 음미한 라이문드 신부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다른 '명상' 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종님 라이문드 신부(왼쪽)가 개화사 송강스님과 만났다. 강서구내 발심상담 주임신부인 라이문드 신부는 매년 부처님오신날 개화사에서 큰행사를 봉행한다.

침향 흐르는 발심상담선(禪)적인 그림 '장엄'

매년 개화사서 관불하며 부처님 오신 뜻 함께 새겨

이제 알는 것' 이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교회와 절, 성당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인연이 되었다." 송강스님은 "오랫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공부하며 닦아오다 어느 순간 뜻 타지동 (舟)라는 벗이 되고 말았다"고 했고, 라이문드 신부는 웃음을 머금으면서 "우리 인연은 우연이 아니야"라고 말했다.

라이문드 신부는 궁중신부 생활을 하면서 군종장교로 가톨릭 지원장 고 신학교 시절 동국대서 시경수 박사로부터 불교공부를 하기도 했다. 로마에서 유학했던 1990년대 초에는 도마뱀 방문한 법정스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기도 했을 정도로 불교 와 인연이 깊다. "왕년 마음을 활짝 열고 사시는 송강스님을 보면서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체득하지요. 또 개신교에서는 원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고요를 해지만 참작교는 원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져다가 하지요. 지명일세를 중시하는데, 알고 행하고 행함으로써 아는 진리는 불교적 사상조차 상통하더군요." 불교에 넘나든 관심을 갖고 있는 라이문드 신부는 "처음 불교경전을 대했을 때 '우리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한 책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고 감탄했다"면서 "우리가 섭교하라는 진리를 부처님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미리 설해놓으셨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라이문드 신부는 "가끔 신도들이 나더러 스님같다는 말을 곧잘 한다"며 껄껄 웃었다. 올해 새수로 뵙겠을 맞은 송강스님은 상대를 두고, "겸은 웃에 머리카락이 조금 있는 스님이다. '사양중' 이다"라고 하더니 한 살 위인 신부님과 오랜 도반처럼 농을 주고받는다.

라이문드 신부는 서울 반은 지 40여년이 됐고, 수도자와 같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 올해로 50여년이 넘는다. 평리비에 월인 발심상담을 5년 넘게 이사 있으며 세월고, 80이 넘는 노신부를 모시면서 넉넉하고 품격 있는 사제의 길을 걷고 있다는 라이문드 신부는 경사구 회고해 '인기 신부님' 이다. 계양사제원 발심상담에 거주한 함께이 흐르고 선(禪)적인 기쁨이 장엄해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신부님은 예년처럼 계양사에서 아기부처님을 관불하면서 부처님 오신뜻을 불자들과 함께 전탄할 계획이다.

하정은 기자

불교방송 이사장 선출 못해

종하스님 추천하고 선출방법 엇갈려

불교방송 신임 이사장에 조계종 원로의원 종하스님이 단독으로 추천됐으나 선출방식을 놓고 이사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 선출하지 못하고 폐회했다.

불교방송은 지난 6일 오후 4시를 마감 기한으로 백합실에서 이사 21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회의 초기부터 회의에 참석한 정 이사장 영담스님의 참석 여부를 놓고 조계종 스님 이사들과 신흥원 추천 일부 재가 이사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재가 이사는 몇 점으로 막대를 내려치며 종단 스님 이사들을 향해 '당신' 이라고 표현하고 스스님들 역시 "신도들 신도들에 떳동하라"고 응수하는 등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하기까지 하였다. 이날 개원한 불교방송사장이 폐회를 선언했다. 이로써 정 관 계정의 건 등 안면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안건은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하정철 기자 hjc@buljgo.com

광주지역 고수불자 모여 대학생포교 활성화 모색

"나무묘 대학생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고수 불자들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광주지역 고수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수불자회의 활성화와 대학생 포교 견인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대 등 광주지역 교수불자 20여명은 지난 4월28일 광주 무각사에서 임시 모임을 갖고 향후 지역 교수불자회 활성화 방안과 지역 대불련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수불자들은 열악한 지역 포교활동이 한계에 공감하고 다양한 포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광주지역 교수불자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대학생 불자들을 겨냥한 적극적인 포교에도 나섰 방침이다.

호남지사=진재훈 기자

본·말·주지·지사

(5월7일 주무처)

정호스님 서울 증가사
인지스님 인천불교회관
서원스님 광주 선원사
선경스님 양산 성보사
정공스님 단양 방곡사
호명스님 영산 신흥사
두오스님 의성 운월사
경호스님 진안 옥천암
상준스님 구례 천은사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

"부모에게 나기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법현

해운대 해운정사
주 지 지성
신도회장 박대성 합장

◆ 만년위패◆
해운정사 절 역사와 함께 해마다 세번씩 동참재사를 모셔드립니다.
설날 / 추석 / 중양절(음 9.9)

◆ 정기법회◆ 종정예하 법문
매월(음) 1일 초하루 법회 / 매월(음) 18일 지장재일 법회
매월 24일 관음재일 방생법회

부처님의 79법손
진제 대선사
영 한 홈페이지 www.jinje.kr

해운대 해운정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410번지
☎ 051)745-2256, 744-4812
해운정사 홈페이지 www.seon.or.kr